



## KBS 진주국으로의 발령 &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입사 후 약 3년 6개월 동안의 본사 중계기술국 근무 후 순환근무로 인해 2016년 2월 1일 처음으로 찾은 진주국의 첫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작은 2층 건물의 진주국은 2월의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나를 맞아 주었다. 워킹맘인 아내와 4살, 3살의 연년생 아이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차로 4시간 거리의 진주국으로 발령을 받아 찾아온 나는 새롭게 배워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새로운 선배와의 만남에 대한 긴장감 및 서울에 홀로 남아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발령 첫날 찾은 진주국의 작고 초라한 건물 외경은 적지 않은 실망감까지 들게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내 긴장과 걱정은 진주국 선배들의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금세 사그라들었다. 당장 해결해야 했던 숙소 문제에서부터 새로 맡게 된 라디오 주조라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작고 소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선배들, 저녁 시간의 외로움을 술자리(?)로 같이해 준 동기과 후배들이 있었기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의 생활도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 다행히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어려움에 티내지 않고 묵묵히 적응해 가는 아내의 도움이기도 했다.

출퇴근으로만 하루 4시간 가까이 소비해가며 뻘뻘하게 돌아갔던 서울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고 두 아이에 대한 육아에서 벗어난 진주에서의 생활은 오랜만에 삶의 여유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진주국 기술부

20명으로 이루어진 진주국 기술부는 송출센터, TV주조, 라디오 주조, 4개의 송신소와 중계소 및 10여 개 TVR 시설의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KBS 내에서도 RF의 메카로 불리는 진주국은 타 업무에 비해 RF 분야만큼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망진산, 감악산, 망룡산, 진주송신소 및 10여 개의 TVR 시설을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및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Know-How를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선배들의 노력과 더불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후배들의 땀과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업무적인 면 이외에 선후배 간에 벽이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또 하나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입사 20년 차 이상의 OB팀과 입사 5년 차 이내의 YB로 구분될 정도로 중간에 해당하는 선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허물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기술부 직원들 서로에게 외로움을 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진주국 기술부는 RF의 메카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그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진주국 기술부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목: 진주국 라디오 주조  
- 박은지: 2016년 4월에 진주국 발령받은 신입사원  
- 사진 찍는다고 하니 어색해하며 환하게 웃어주는 착한 후배입니다.



< 송출센터는 24시간 가동 중 >  
- 박동환: 진주국의 성인군자  
- 진주국 젊은 직원들을 항상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십니다



사진소개 (왼쪽부터) - 박영식 선배: 망진산 송신소 담당, RF의 달인 / 정환춘 (등 밖에 안보이네요 죄송!): TV주조 담당, 회선 전문가 / 노종현 (등 밖에 안보이네요 죄송!): 감악산 송신소 담당, RF의 다크호스 / 김미소: 행정, 기술부 최고의 미녀 / 한창진: 망진산 송신소 담당, 기술부의 대표 축구 선수 / 황봉주 기술 부장, 헤어스타일이 뛰어난 예술가 / 이윤철 선배: TVR 담당, 하루 2장의 애연가



제목 : 뉴스 VCR은 항상 긴장 중  
- 남재주 : 진주국의 꽃미남  
- 짧은 근무기간임에도 오디오/VCR/TVR 등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진주국의 대표 미남입니다.



제목 : Spot 송출을 위해 대기 중인 TV 주조 스태프들  
- TV 주조는 항상 긴장 속에 있는 듯하다. 기술 감독님의 휴가로 대신 비디오 스 위치를 맡게 된 동기 정환준 엔지니어의 긴장된 모습이 뒷모습에서도 뻔히 보이네요.

## 경남 진주시는

경상남도 진주시는 인구 34만 명의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며, 남해와 하동, 삼천포, 사천 및 통영 등 남해안의 유명 관광지와의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의 도시이기도 한 진주시는 논개로 유명한 진주성과 남강, 진양호 등의 많은 볼거리가 산재해 있으며, 특히 매일 밤 성곽을 밝혀주는 진주성의 야경은 매번 보아도 질리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다. 특히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를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초에 개최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남강에 띄어진 유등과 진주성이 어우러져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또한, 진주시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남강은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코스를 가지고 있다. 가끔씩 운동을 위해 걷기도 하는 남강 주변은 빼어난 경치를 뽐내고 있으며 복잡한 생각이 들 때면 시원한 강바람과 어우러져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최고의 산책 코스 중 하나이다.

추가로 진주에는 우리나라 어딜가도 찾을 수 없는 '실비집'이라는 진주만의 독특한 술 문화가 있다. 실비집은 말 그대로 실비(實費)만 받고 파는 집이라는 뜻으로 통술집과 비슷한 개념이며, 술만 주문하면 안주가 무료로 나오는 주점을 말한다.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이 문화는 IMF로 인하여 주춤하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진주를 오신다면 꼭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한다. 필자도 아직은 가보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러한 새로운 음주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 🍷



야경이 매력적인 진주성 모습